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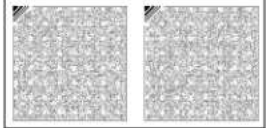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11월 280호

(02) 796-4280 www.kapppd.or.kr

## 3 뉴스

장애인 자립직업장 경영자연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모색



## 5 뉴스

장애인식개선 강사 워크숍  
장애 친화적 기반조성 위해



## 12 특집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화보



## 16 국제

감각 느끼는 로봇 팔 화제  
'마인드 컨트롤 로봇 팔'



## 지장협,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지체장애인대회 개최

상곡인권상 대상 양경자 전 의원 등 6명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대상 이채필 전 장관 등 34명 수상



▲지장협이 창립 30주년 기념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당사자주의로 이룩한 도전의 역사 30년, 복지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의 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는 윤희정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와 심재철 국회의장, 양승조, 주호영, 오세재, 성일종 국회의원 등 내빈과 800여 명이 참석해 지장협 30주년을 축하했다. 지장협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

년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발전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의 바탕에는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며 “30년간 보여준 열정으로 사회변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자”고 선언했다.

이어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 심재철 의원은 축사로 “지장협 30년간의 역사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역사였다”며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유공자 6명에게 ‘상곡인권상’을 시상했다. 상곡인권상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에 헌신한 지장협 회장기훈 초대회장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양경자 전 국회의원이 대상을 받았다. 양 전 의원은 지장협 초대 고문으로 협회 설립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 밖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재근 협회장, 지장협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 고형호 위원장, 경기도 용인시의회 이은

경 의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 박성호 지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어서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 2001년 지장협은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이날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해왔다. 이 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상(국회의장 표창)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상했다. 이 전 장관은 지체장애인으로서 노동부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 장관까지 역임했으며,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주들과 장애인 고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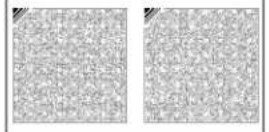
봉사대상(대법원장 표창)은 성우종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에 돌아갔다. 성 후원회장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애인합동결혼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지역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화합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인천광역시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 등 7명이, 자립상(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 등 6명이 받았다. 이어서 지도자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차원우 지회장 등 8명이, 모범상은 김용기내과의원 김용기 원장 등 11명이 수상했다.

그 밖에 지장협은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 3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지장협 30년사’를 발간하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ADT캡스 챔피언십, 지장협 후원금 전달

## 참가자들, 지체장애인의 날 맞아 자발적 기부



▲ADT캡스가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ADT캡스는 지난 11월 10일, ADT캡스 챔피언십이 열린 경기도 이천의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임직원들을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ADT캡스는 이날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등 20명을 대회장으로 초청해 지체장애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선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를 진행했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모금한 후원금은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ADT캡스 챔피언십 2016 공식 프로암 기간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만들

어졌다. ADT캡스 최진환 대표이사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체장애인의 날을 축하했다.

또 기부천사로 알려진 김해림 선수와 조윤지, 김민선 선수와

함께하는 팬미팅을 마련해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호신용품으로 전자호루라기와 대회 초대권도 전달했다.

이 외에 ADT캡스는 이번 대회 기간 장애인을 위한 전용 관람석도 별도로 제공해 편안히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ADT캡스는 평소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ADT캡스는 임직원 봉사단인 '파란스마일'을 발족해 올 한해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캠페인과 사회봉사를 펼치고 있다.

## ‘운전면허-도로연수-차량개조’ 원스톱으로

### 국립재활원-장애인고용공단-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도로연수, 자동차 개조 등의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로교통공단은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A센터에서 ‘장애인 자가운전과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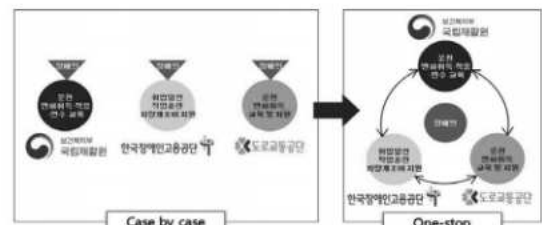
협약에 따라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의뢰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과 도로연수 교육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나머지 두 기관이 의뢰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차량개조를 지원하고 취업·직업재활훈련 등을 앞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각 관련 기관을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맺은 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이 취업에서 운전교육·차량개조까지,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면허취득과 차량개조 및 취업 서비스 체계가 원스톱으로 변화했다. ©보건복지부

- ◎ 전국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 ◎ 취업알선, 직업재활훈련, 차량개조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 도로교통공단(1577-1120)

▲기관별 전화상담 안내번호

## ‘장애인연금·수당’ 압류 금지한다

### 11월 30일부터 급여전용계좌 통해 압류 방지 설정

오는 11월 30일부터 재권자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급여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급여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 같은 효력이 미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압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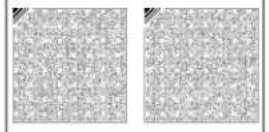
래인연금과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이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과 수당·교육비 등을 수령할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압류 방지 설정은 신청서에 수급계좌로 이용할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지장협,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모색

##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개최



▲지장협이 2016년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를 개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을 모색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열린 경영자연수에는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경영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중앙회장은 "변화하는 사회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서 한국복지경영연구원 강

종건 원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원장은 판로확보를 위해 대량거래를 통한 원가 절감, 작업장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보유 장비와 생산품목 공유, 협동조합 설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고귀엽 부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추진현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연수를 마친한 지장협 관계자는 "각 시설의 경영자들이 고민하던 판로개척 방안에 대한 교육이 만족도가 높았다"며 "이번 교육이 시설장의 역량강화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장애계 시국선언 가세

##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대통령 하야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월 8일 장애계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회 앞에서 '장애계 시국선언'을 개최하고, 현 정부의 복지 외면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장총련 안전환 상임대표는 "거주시설 수용인원은

늘리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생활은 필박해온 현 정권의 복지 철학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권력남용과 농간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다.

최근 비선 실세 논란은 2018 평창패럴림픽까지 번지고 있다.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동계스

포츠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과다하게 받고, 동계스포츠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총련과 한국장총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1988년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인 복지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평창패럴림픽 관련 사업에 비선 실세가 개입해 장애인 예산마저 사리사욕을 위해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장애계가 시국선언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유사중복 통제,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당한 예산 확보 요구를 차단하고, 장애인의 팔다리를 옥죄며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를 향해 △국정농단 · 국기 문란 등 각종 비리와 부패의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시설 건축허용 추진

## 개정법 발의...주민 갈등 최소화하며 장애인복지 개선 초점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신재철(안양동안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월 13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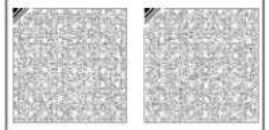
은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기본법’ 제정, 엇갈린 의견

## “시대적 요구” VS “시급하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 관련 법령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변화된 장애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장애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와 이종명 국회의원은 ‘장애인기본법에 따른 장애인관계법령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전통일 교수와 열린사이버대학교 임재현 교수는 “그간의 장애인관계법령이 법령 간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각 제정돼 법률 간의 관계 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기본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두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즉 장애인기본법이 장애인관계법령을 아우르는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 법의 구조는 1차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직업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자립생활, 이동편의, 보조기기, 인권보장, 복지서비스, 특수영역 등으로 구분하



▲ ‘장애인기본법에 따른 장애인관계법령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고, 2차로 관계법령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기본법’은 소득보장 영역으로 연계하고, ‘건강 관련 법령’은 건강보장 영역에, ‘고용정책 기본법’ 등은 직업보장 영역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두 교수는 체계 설명에 이어서 정비 방향도 밝혔다. 국제적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각론에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을 해체하되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한다. 또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 자립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인

권,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기존의 장애 관련 법안과의 관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장애 관련 법안의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소장은 “장애인기본법을 신규 입법하고 여기에 맞게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지는 않

장은 법률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의 전면 개정으로 미비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장애 관련 법령의 체계화나 국제사회의 권리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이 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만,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장애급여 신설 등 예산이 수반된 정책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대학장의발명대회 ‘양방향 휠체어’ 개발

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품 선정



▲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품 ‘양방향 휠체어’. ©정책브리핑

‘양방향으로 사용하는 휠체어’가 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이 발명품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시 후방으로만 앉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받이와 다리받침을 전후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이 발명품은 문제인식,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해결책, 실현가능성과 미적인 측면까지 만족시킨 결과물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발명품이 상용화되면 장애인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를 발명한 주인공

은 형주대팀(조성욱·김문경·김관후)으로 ‘대학장의 발명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34개 대학에서 4636건의 아이디어 작품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국무총리상은 ‘디지털 곡물환경 측정장치’를 발명한 충남대팀(안성현·이태련·최재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서울과학기술대 고영준·가톨릭대 김정후·KAIST 이수호 등 28개 대학 44팀이 우수발명상을 수상했다.

## 한국장총 제8대 공동대표 취임식

“장애인이 주인되는 사회 만들어가겠다”



▲한국장총이 제8대 공동대표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제8대 공동대표 취임식을 개최했다.

11월 15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병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대섭(한국농아인협회장), 최한

식(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한광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 서용규(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공동대표가 무대에 올라 인사하며 포부를 밝혔다.

이중 상임대표를 맡은 이병돈 회장은 취임사로 “진정한 장애

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장애 당사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가 제도개선을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산적인 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8대 공동대표단은 지난 9월 28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됐다. 대표단은 향후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한국장총을 대표해 장애계의 협력과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



# 지장협,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워크숍 개최

## 장애 친화적 기반조성 위한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구성원의 장애 친화적 기반조성을 위한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지장협은 올 상반기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사업'을 실시해 전문 강사 60명을 양성했다. 이들은 11월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사자, 초·중 및 대학교 학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펼쳐왔다.

지장협은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 간의 정보 교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첫 번째 강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최원석 조사관이 나섰다. 최 조사관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룹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서 1인1책 김준호 대표가 강의기법 컨설팅을 주제로 교육했다. 김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3분 스피치 발표를 주문하며 자세한 코칭을 제공했다.

둘째 날에는 와인드 스피치 대표이며, 다수의 리더십 강의에 출연한 박근아 JTV아나운서가 자신의 스피치 노하우를 들려줬다. 박 대표는 경험에서 체득한 자신감 향상법을 전달하며 강사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마련한 지장협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강의와 함께 그룹별 토론과 스피치 발표가 이루어져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며 "워크숍을 통해 강사분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장협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 시각장애인의 등불, 한글점자 90주년 맞아

###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해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11월 4일 '점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4일 '제90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한글점자를 만들어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학습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왔다.

기념식은 도종환 국회의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 '알아들이 박힌 한글점자 90년, 백년의 미래도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1부에서는 점자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상'에는 중도실명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재활해 전역교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지역 회원 이문일 씨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상'에는 지

역향토자료를 점자도서로 제작하고 점자도서관 환경개선에 기여한 인천화도진도서관 윤명호 관장이 수상했다. 또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지만 대전 점자도서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점자도서를 제작해 온 김희진 씨와 점자법을 발명한 최동익 제19대 국회의원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기념사로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배움의 길을 가는 등불이며, 사회와 소통하는 고유문자"라며 "90주년을 맞아 점자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점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김호식 회장은 점자사용이 줄어드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 서초구에 공립지체장애 '나래학교' 신설

### 옛 언남초등학교 위치...2019년 3월 개교

서울시교육청이 서초구 염곡동 옛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공립특수학교 '나래학교(가칭)'를 설립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강남·서초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행정예고했다.

나래학교는 지체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22개 학급으로 구성된다. 2019년 3월 개교가 목표다. 서울시에는 지난 2002년 이후 14년간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원거리 통

학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강서권과 강남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세웠다. 올해 8월에는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함께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문자가 없는 민족은 융성할 수 없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정보 습득 수단을 음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점자를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할 것 △점자의 단순화를 위해 규정 예외를 최소화 할 것 △원본 파일을 활용해 빠르게 정확

하게 점자를 제작할 수 있게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회의원당역 역사 내에서 점자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점자도서 및 촉각도서 전시, 점자스티커 및 명함 제작, 시각장애 체험 등 시민들이 점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 “우리는 진정한 친구”

## 장고협,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 시상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11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6 장애청소년 Best Friend(베스트프렌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상은 통합학급에서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또래 청소년의 장애인식개선에 모범이 되는 비장애 청소년을 표창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고협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장고협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장애청소년 Best friend’로 활동하는 비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총 20팀(개인 17명, 단체 3팀)에게 표창장과 상금 20만원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홍보 영상 시청, 표창 시



▲장고협이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을 시상했다.

상, 활동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20팀 중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울산 삼남중학교 굿프렌즈 밴드 동아리 ‘우리’ 팀에게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표

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한 학생은 활동사례 발표에서 “밴드활동을 시작할 때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호흡도 잘 맞고 화합하는 밴드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는 “시작할 때는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두려워

망설였는데 Best friend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고협 조항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라는 색안경에 가려 보이지 않던 많은 장점들이 친구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며 “단순한 학습 도우미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당부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은 이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격려했다.

## ‘차세대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 12월 9일까지 접수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이하 센터)가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세대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3종으로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 이동 접근성 장치, 입력 접근성 장치를 준비했다.

먼저 태블릿 PC는 안드로이드

이용이며, 크기는 10인치다. 이동 접근성 장치는 휠체어형 거치대와 책상형 거치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입력 접근성 장치의 경우 스위치 또는 인터페이스·키보드 중 한 제품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www.atrac.or.kr) 내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배너

를 클릭하고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12월 9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적합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센터 AAC 개발팀(070-7114-0311~2)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 11월 9일



▲ 11월 9일 이룸센터에서 차세대 의사소통 보조기구 시연회가 열렸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차세대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구

시연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 장애인의약품 복약 앱 개발

### 상명대 김현정 교수 특허출원

시각·청각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상명대학교 김현정 교수는 11월 20일 ‘복약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가 처치 방법’으로 특허(출원 번호: 10-2016-0150370)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허 출원과 함께 이

기술을 구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았다.

애플리케이션 ‘Medi-writer’와 ‘Medi-helper’는 일반인들에 비해 의약품 오용과 과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앱은 스마트폰 NFC 태그(Tag)가 붙어있는 의약품에 스마트폰을 대면 약품의 복약·처치



▲김현정 교수가 개발한 복약 앱 상형테스트와 이해도. ©상명대학교

에 관해 음성과 시각정보로 동시에 제공해 준다. 따라서 시각과 청각기능에 이상이 있는 해당자들이 혼자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다.

특히 생활도우미 없이 일반의약품 복약이 불가능했던 시각장

애인도 스스로 복약·처치가 가능해져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복약도우미 앱인 ‘Medi-writer’와 ‘Medi-helper’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앱이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서귀포시지회 우승

## 홍창희 부장 등 5명 도의장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시지회)는 지난 11월 5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제16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플라잉디스크와 컬링 등의 경기를 펼쳤다. 대회 결과 서귀포시지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서는 우수한 지회 사상과 더불어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도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제주시지회 서귀포시지회 홍창희 부장, 제주시지회



▲제주시지회가 '제16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고윤옥 감사, 제주시지회 용담동분회 고석홍 분회장, 제주시지회 황우성 주임, 김성호 대리가 수상 영광을 누렸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는 여러 도의원 및 유형별 장애인 단체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장애인 4명, 바리스타 과정 수료

### 포항시지회, 제1기 수료식



▲포항시 장애인 4명이 스텔라를 통해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스텔라'는 지난 11월 7일

제1기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생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역 장애인의 '희망 일터'로 불리는 스텔라는 카페이자 바

스타 교육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유럽 스페셜티 커피바리스타(SCAE barista skills) 자격을 보유한 정승아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강새로미(청각), 김국자(지체), 이원준(정신), 이순애(지체) 씨로 총 4명이다. 이들은 바리스타 기초과정의 이론을 꼼꼼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실습에 임했다.

수료식에서 이경목 지회장은 "이번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더 많은 공부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돕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스텔라는 추후 2기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어요"

### 인천지장협,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인천지장협이 제9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제9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대회'가 지난 10월 26일 인천 대공원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임순봉, 이하 인천지장협)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인천 각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현역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가을 정취를 느끼며, 5km를 함께 걸었

다. 이날 걷기대회는 한국마사회 인천남구지점, 사랑병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현대유비스병원, 남구 경영자협의회, 서희건설, 한국독도사랑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인천지장협 측은 참여한 모든 장애인에게 자장면을 제공하고, 겨울용 패딩 조끼를 증정했다.

## 진천장복, 청호그룹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 저소득 장애인 100여 세대에 김치 배달



▲진천장복이 청호그룹과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실시해 장애인 100여 세대에 김치를 전달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은 (주)청호나이스(대표이사 이석희)와 함께 11월 11일 진천군 저소득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실시했다.

진천장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관 이용고객 및 재가장애

인 10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제공하며 동절기 영양공급을 지원했다.

한명수 관장은 "청호나이스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하다"며 "김치를 받은 모든 지역장애인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군위, 여성장애인 자립실천대회 개최

###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견학



▲군위군지회가 여성장애인 자립실천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지회장 김정기)는 지난

11월 1일 여성장애인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여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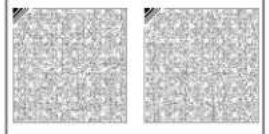
애인 자립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남 창원시의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현장에서 진행됐다. 지회 측은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화축제 관람 이후에는 돌섬의 해안선을 따라 산책하며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기 지회장은 "자립실천대회를 통해 지역 여성장애인들이 유대를 강화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대구지체장애인대회 개최

## 제16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1500명 모여



▲대구지체장애인이 제16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대구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16일 대구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대구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제16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의 염원을 담아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지체장애인 1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체장애인의 날

제정 취지문' 낭독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치사, 김연창 대구경제부시장, 류규하대구시의회의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대구지체장애인은 지역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표창하고, 격려했다.

김창환 협회장은 "이번 대구지체장애인대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의지를 다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 김천시지회, 여성장애인 자립심 고취 장애인 행복건강걷기대회 참가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여성장애인 자립실천대회'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센터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11월 3일 '여성장애인 자립실천대회'를 실시했다.

김천시지회 여성활동가와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한 실천대회 일정은 문경새재에서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문경새재 둘레길을 걷는 '2016 장애인 행복건강걷기대회'에 함께하며, 수려한 가을 경치를 만끽했다.

오후에는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 이동해 한반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2천여 점의 생물표본을 관람했다. 활동가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며,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하 센터장은 "여성자립실천대회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포시지회, 고려인에 보장구 기증 2500만원 상당의 휠체어와 목발 등 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보장구를 기증했다.

지난 11월 1일 김포시지회는 휠체어와 목발 등 약 250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싣고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 7일까지 진행된 일정 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고려인 등 소외된 장애인에게 직접 보장구를 전달했다.

또 현지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온 (사)전통문화예술연구소 김명석 이사장의 안내로 고려인협회장, 키르기스스탄 보건복지부 차관, 국립극장 대표, 이슬람 주 대표, 나른 주 대표를 만나 향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 중 나



▲김포시지회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고려인에게 보장구를 기증했다.

른 주에서는 보장구 지원의 답례로 김포시지회에 장애인 재활승마용 말 두필을 기증하기로 했다.

김포시지회 측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직접 본 고려인 장애인의 삶은 정말 열악했다"며 "이들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은 아직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휠체어나 목발도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장애인들은 보장구를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 문경시지회,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차별이 아닌 차이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흥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지난 11월 11일 문경서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인 여일동 문경시지회 부회장이 나섰다. 여 부회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에서 다수의 교육을 펼쳐온 전문 강사다.

여 부회장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차별이 아닌 차이로 공감하기'라는 슬로건을 띄우고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장애의 이해, 장애인 에티켓,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체험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친구를 둔 2학년 학생은 "장애체험을 통해 불편함을 알 수 있었고,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잘 배웠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을 마친 박흥진 지회장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문경시지회가 문경서중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

해 다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지장협-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 MOU

## 맞춤형 교육과 장애인 취업 지원 등 연계



▲경기지장협과 한국복지대학교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11월 15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상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사회 맞춤형교육 지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우수 인재 채용 기회 제공, 지역사회 보조기기 확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복지대학교 이상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이 지역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협회도 장애학생의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처인장복 '제4회 한마음 가족 운동회' 개최

### 300여명 건강한 기운 발산



▲용인처인장복이 '제4회 한마음 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처인장복)은 11월 3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복지관 이용고객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제4회 한마음 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이 모인 이번 운동회에는 정찬민 시장, 백건기 전 국

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쿼텟합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공굴리기, 링 던지기, 카드뒤집기, 이어달리기 등을 진행했다.

박상구 관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이 참여했다"며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기운을 주고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동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었다"며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운동회에는 바르게 살기운동용인시협의회, 포곡라이온스클럽 등이 물품을 후원했다.

##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충남남부장복, 무료 창업교육



▲남부장복이 무료 창업교육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 이하 남부장복)이 무료 창업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창업준비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과 주민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받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요 내용은 ▲창업 트렌드 분석

및 아이템 발굴 ▲장애인 창업 ▲금융 지원제도 활용전략 ▲성공 창업 기업 CEO와의 만남 ▲커뮤니케이션과 통합 마케팅으로 구성했다.

교육을 이수한 김모 교육생은 "창업교육에서 성공한 기업주의 실제 사례를 들으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장복은 앞으로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 아산장복 자연과 사람이 있는 서산여행

### 재가장애인 문화체험 제공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11월 4일 재가장애인 30여명과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자연과 사람이 있는 서산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여행은 그동안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이 부족했던 재가장애인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여행 코스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해미읍성과 버드랜드 등 서산·천수만 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한 참가자는 "몸이 불편해 집에 있는 날이 많은데 여러 사람



▲아산장복이 재가장애인들과 서산여행을 다녀왔다.

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관장은 "앞으로도 복지관은 재가장애인들이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여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장복은 매년 재가장애인의 문화 지원을 위한 '세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등유 지원

### 홍성장복, '사랑의 난방유' 기관 선정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천규, 이하 홍성장복)이 현대오일뱅크 나눔재단에서 실시하는 '2016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랑의 난방유 사업은 복지사 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성장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관 측은 11월 말 등유 쿠폰을 수령한 후 지역 저소득 장애인 10가정에 등유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 제10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

## 1200여명 의정부장북 일대 함께 달려

제10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1월 5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 이하 의정부장북) 주변 도로에서 펼쳐진 마라톤에는 전국에서 1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장북과 대한장애인체육협회가 공동주최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 뽀나미슈, 웰메이드코리아, 티타임미디어 등이 후원했다.

개그맨 배동성과 배우 임성민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대한장애인체육협회장 구탁본 부회장의 대회선언을 하며 시작했다. 의정부장북 이춘희 관장의 대회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환영사 및



▲의정부장북이 제10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상 국회의원, 박종철 의정부시의회의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회 후원기관인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능협 동의정부지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가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대회 진행을 도운 예인캠버오케스트라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연예인 현영에게 의

정부장북 홍보대사 위촉패를 증정했다.

대회 결과 레이싱 부5km(T51~52) 1위는 최재웅, 레이싱 부5km(T53~54) 1위는 유병훈이 차지했다. 핸드사이클부5km 조광복(남), 전명희(여), 생활용 휠체어장년부5km 이강원(남), 전미석(여)이 각각 우승의 영광

을 안았다.

그 밖에 생활용휠체어청년부 5km는 이동렬(남)·이미옥(여),

지적장애인부5km는 김동현(남)·송영미(여), 장애인통합부 5km는 강훈운(남)·오상미(여), 청소년고등부5km는 이지우(남)·윤수지(여), 시각장애인부 10km는 정운노(남)·최은주(여), 비장애인부 10km는 황세웅(남)·윤기남(여)이 각각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의정부장북 이춘희 관장은 "제1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다"며 "장애인 체육대회의 모델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여장북, 지역주민과 '열린 음악회'

### 노래와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 펼쳐져



▲부여장북이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7일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도기, 이하 부여장북)이 장애인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

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무대는 대한가수협회 충남지회와 한국장애인녹색환경충남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음악회에서는 한국장애인녹색환경충남협회 소속 가수들이 노래와 색소폰 연주, 전통무용 등을 선보이며 흥을 높였다. 장애인녹색환경 회원들은 직접 핫도그와 튀김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제공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한편 이날 부여장북은 대한가수협회 충남지회(최화정 대표)와 한국장애인녹색환경충남협회 부여군지회(지회장 신옥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 김천장북, 장애인 인권 교육

### 장애인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처 제언



▲김천장북이 장애인 인권 및 권익옹호 교육을 실시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은 10월 27일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 인권 및 권익옹호'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이사 겸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성 소장이 직원과 이용고객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나는 소중해

요'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최성 소장은 먼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했다. 또 선진국의 장애복지 사례도 소개했으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언어 표현, 행동, 마음가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이용고객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태안장북, 무장애 탐방로 트레킹

###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생태나누리' 진행

태안군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 이하 태안장북)은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무장애 탐방로를 산책했다.

태안장북은 지난 10월 25일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변길 트레킹을 기획했다. 생태나누리 사업은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과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레킹 참가자들은 기지포 해수욕장에 모여 무장애 탐방로 '천사길'을 걸었다. 이 길은 휠체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조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바다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복지관은 트레킹에 이어서 지역문화체험으로 토끼이리 만들기도 진행했다.



▲태안장북이 '생태나누리' 사업을 진행하며 무장애 탐방로를 산책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북부장북 노원역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기증

## ‘행복 충전 노원 만들기’ 캠페인 벌여



▲북부장북이 노원역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기증했다.

서울시립북부장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북)이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를 노원역에 기증했다.

충전기 기증식은 11월 9일 노

원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증식에 참여한 장애인 김모(지체, 56) 씨는 “이동할 때 전동휠체어가 멈춰서 당황한 적이 있다”며 “자주 이용하는 노원

역에 급속충전기가 생겨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한 급속충전기는 지난 10월 20일 독심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삼성카드 열린나눔 행사를 통해 적립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북부장북은 노원역 이외에도 중계역, 하계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북부장북은 기증식에 이어서 ‘행복 충전 노원 마을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환경미화 활동을 벌였다. 복지관 직원과 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을 청소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유성장북, ‘제3회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 나라사랑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병규, 이하 유성장북)이 ‘제3회 장애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10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모인 장애인 800명은 ‘나라사랑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 걸었다. 이 자리에는 유성구청 사회복복지국장,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시의원, 복지관 후원회장,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구암사, 대왕산삼백속, 노은도매화인마트,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에서 점심식사와 간식을 후원했으며 SK이노



▲유성장북이 ‘제3회 장애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베이션, 주부자원봉사단, 유성경찰서 도봉지구대 등 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인과 동행했다.

박병규 관장은 “장애인 분들

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구성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문경자립센터 발달장애인 마라톤 완주

### 서봉기마라톤대회 10km 달린 장애인 화제

지난 11월 11일 열린 서봉기단축마라톤대회에 발달장애인들이 참가했다.

비장애학생이나 성인이 주로 참여해 온 마라톤대회에 이번에는 장애인 10명이 참가해 비장애인들과 함께 달렸다.

그 주인공은 문경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센터장 박종훈, 이하 문경자립센터) 이용자들로, 이중 전상훈 씨는 10km를 57분 만에 완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다른 9명은 3km를 완주해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도 문경자립센터는 장애



▲서봉기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발달장애인들이 완주해 박수를 받았다.

인 체력증진과 대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마라톤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롯데케미칼 저소득 가정 난방유 지원

서산장북, 지역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전달



▲롯데케미칼이 저소득 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해 서산장북에 난방유 지원금을 전달했다.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공장장 김우찬)은 서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준곤)에 지역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을 위한 난방유 지원금 1천 만원을 전달했다.

11월 9일 전달한 지원금은 롯데케미칼이 임직원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조성

했다. 매칭그랜트란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다. 롯데케미칼 측은 전달식에서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했다.

##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 가족 나들이

청도군 일대 체험하며 사회성 향상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가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 주간보호센터는 11월 10일 가족 나들이를 진행했다.

나들이에는 이용고객과 가족 19명이 참가해 청도군 일대를 관람했다. 운문사를 견학하고, 철길을 따라 다양한 조형물을 구경하는 레일바이크를 체험했다. 이어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과 프로방스를 견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부모 간

담회도 마련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다.

나들이에 참여한 이용고객은 “부모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함께 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체험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영천장북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외부활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 창립 30주년 기념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포토리뷰



▲창립 30주년 기념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경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양경자 전 국회의원 등 6명 상국민권상 수상



▲성우중 총남지장협 후원회장 봉사대상 수상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람스런지체장애인 대상 수상



▲위동서시스템 이인철 대표이사 등 7명 화합상 수상





▲강원지정협 최우수협회 수상



▲대구지정협, 경기지정협 우수협회 수상



▲서울 서대문구지회 최우수지회 수상



▲심재철 국회의부의장 축사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사



▲주호영 국회의원 축사



▲오제세 국회의원 축사



▲최승원 성악가의 축하공연



▲한울소리의 식전공연



▲장기 자랑 수상자들



▲장기 자랑 심사



▲2부 사회를 맡은 김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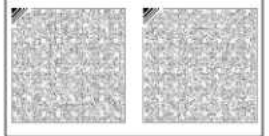
▲기념식 참석자들



# 복지 헬스케어 전시회 SENDEX 2016 성황

## 장애인 보조기기 실버용품 등 550여개 부스 전시

소리로 읽는 새보람



▲복지 헬스케어 전시회 SENDEX 2016 개막식

### 3만5천명 전시 관람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 리빙 & 복지 헬스케어 전시회 'SENDEX(센덱스) 2016'이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센덱스는 2005년 국내 최초 정부 주최 고령친화산업 전시회로 시작해 2009년부터 8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마크를 획득한 박람회다.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한국복지구판매협회, 50플러스코리아, 한국실버산업협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 등이 주관했다.

3일간 28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총 552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업체들은 리빙&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생애설계, 건강&뷰티, 헬스케어&재활, 복지&보조공학 분야로 나뉘어 각종 기술,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유통·구매 상담회와 산업·정책 세미나, 노인자원봉사대축제, 대한노인회 축제 등을 동시에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제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기간 총 3만 5천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 시니어 복지, 최적의 마켓

첫날에는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제10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요양원동조합 YCOOP설명회, 노후준비·생애설계 설명회가 함께 열렸다.

또 바이어초청 유통구매상담회, 제1회 고양시장배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대회, 고령친화산업 10주년 기념 실버산업 전문가포럼 등도 펼쳐졌다.

전시회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인구가 약 1750만 명에 달해 인구의 34%를 넘었다"며 "이는 2000년에 비해 세 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비율도 2001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약 250만 명에 달해 노인, 장애인 관련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센덱스가 매년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니어 및 복지산업을 위한 최적의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직접 참관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아가 SNS를 통해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현장 중계를 진행했다. 50플러스코리아 역시 한국아나운서클럽 소속의 전직 지상파 아나운서들로, 50세 이상 시니어라는 점이 전시회와 맥락을 같이 해 의미를 더했다.

2017학년도 1학기 기간: 12월 1일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신·편입생 모집**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산학교류협약으로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 진학!!**

(졸업 후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국가장학  
지원다양한  
장학금  
제도

사회적배려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는 100% 장학지원

학과	관련자격증	
청소년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사 2급	글로벌문화교육사
영유아보육학과	보육교사 2급	라이프코칭지도사
아동복지학과	청소년지도사 2·3급	원예심리상담사
복지경영학과	평생교육사 2·3급	가족보호사 1·2급
생활환경복지학과	직업상담사 2급	방과후독도교육사
경찰행정복지학과	임상예술심리상담사 3급	방과후지도사 2급
군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지도사 2급	건강가정사
심리상담치료학과	심리상담사 1·2급	청소년상담사 3급
특도학과	통합미술심리지도사 1급	독도교육사
	※ 상기 자격증 중 4~6개 취득가능	

상담 및 문의 임승환 부총장 (010-3824-0118)

입시처 (053-712-3011)



▲SENDEX 2016 전경



## 장애인영화제

##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영화축제

## 대상, 김수정 감독 '파란 입이 달린 얼굴'

'제17회 장애인영화제'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합정역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됐다.

이번 영화제는 멀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가 알고 보면 가깝다는 뜻을 담아 '영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표어로 선정했다. 상영 작품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재를 담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작품은 각각 개막작, PDFF경선, 장애인미디어운동, 특별초청

(해외초청, 국내초청, 관객초청) 등 4개 부문에서 24편을 상영했다.

개막작은 시각장애와 관련된 작품인 '깨어 있으라', '새로 온 동료' 두 편이 선정됐다. '깨어 있으라'는 영국의 마이클 악트만 감독의 작품으로,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시각장애인 아나에게 긍정적 도전을 찾아오면서 변화하는 일상을 보여준다.

'새로 온 동료'는 후주의 제네비예브 클레이의 작품으로, 소심

한 한 남자가 시각장애인 동료를 만나며 달라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장애가 있건 없건 마음 터놓고 서로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물고만 트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화제 대상은 김수정 감독의 '파란 입이 달린 얼굴'이 받았다. 이 영화는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여자가 다시 한 번 삶을 꾸꾸는 이야기다. 감독은 프로그램 노트에서 "빈곤과 장애, 가족과 노동 등 수많은 구조적 문제가 여자의

목을 옥죄지만 이것이 삶의 무게"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 우수상은 '아들에게 가는 길(최낙권 감독)'이, 인권상은 '성주(황장우 감독)'와 '슬래집기(최형원 감독)'가 받았으며, 신인 감독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황지은 감독)', 관객심사단상은 '아들에게 가는 길(최낙권 감독)',

'두근두근, 안녕(정서영 감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영화제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으로 "장애인과 주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용기 있게 표현한 작품이 다수 포진해 인상적이었다"며 "이러한 작품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을 긍정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한지민과 영화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

## 경기도 종합우승...MVP 사격 박철 선정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7938명이 26개 종목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은 경기도, 2위는 서울, 3위는 개최지인 충남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MVP)상은 개인전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 1개와 패럴림픽 신기록 1개, 단체전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 2개를 수립하고 5관왕에 오른 사격의 박철(충북) 선수가 받았다. 박철은 2012년 런던패럴림픽을 보며 운동에 대한 꿈을 품고, 2013년 인천에서 사격을 처음 시작했다. 2014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행한 꿈나무·신인선수 훈련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돼 집중훈련을 받았으며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신인선수상을 받았다. 2016 리우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으나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박철은 "이번 체전에서 MVP로 선정돼 정말 기쁘다"며 "리우패럴림픽 이후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의미가 크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 최초로 선수부와 동호인부가 정식으로 구분되는 변화가 있었다.

폐회식은 10월 25일, 아산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주요 내빈과 선수 및 임원, 충청남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내년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 장애인과 예술가의 콜라보, '함께이음' 시작

## 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창작소 등 3개 프로그램 진행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인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업 '함께이음'을 시작했다.

'함께이음'은 문화예술교육에 열의가 있지만 관심 분야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과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음창작소', '이음버디', '이음콘텐츠 제작소'로 나눠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음창작소'에서는 장애인들이 평소 해보고 싶었던 문화예술 활동을 예술가와 한 팀이 되어 직접 참여한다. 또 참여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다른 장애인에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

이음창작소는 현재 총 8팀이 구성돼 있다. 발달장애인 도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함께이음' 사업을 시작했다.

요리, 포토북, 감정북, 시각장애인 무용, 지적장애인 미술, 플라워아트 등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대의 참가자가 팀을 이뤘다.

'이음버디'는 평소 관심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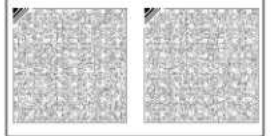
분야의 예술가와 함께 1박2일간 문화예술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과 예술가가 팀을 이뤄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한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여행을 경험하며, 예술가는 장애인의 입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음콘텐츠 제작소'에서는 대본, 연출, 연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뮤지컬 콘텐츠를 전문가와 함께 직접 제작한다. 이 제작물을 추후 '이음센터' 무대에서 참가자들이 관객들에게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센터 블로그(blog.naver.com/kdac9700)를 통해 볼 수 있다.





# “로봇 팔로 감각 느낀다”

## 감각 정확도, 84%로 나타나



▲미국 피츠버그대학 의료센터가 연구하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 로봇 팔'. © UPMC

사고로 팔의 감각을 잃은 한 남성이 '마인드 컨트롤 로봇 팔'로 12년 만에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의료센터(UPMC)는 팔이 마비된 네이션 코프랜드(30)라는 청년의 뇌에 BCI(Brain Computer Interface)라

부르는 작은 칩을 이식하고 로봇 팔을 연결했다. 그 후 감각을 테스트한 결과 코프랜드는 84%의 감각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즉 눈을 가리고 로봇 팔을 간질이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다양한 자극을 주자 코프랜드는 웃으며 연구진에게 “방금 한 것이

간지림이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각각의 로봇 손가락을 짚은 뒤 어느 손가락인지를 맞추는 테스트를 하자 정답을 맞힌 비율이 8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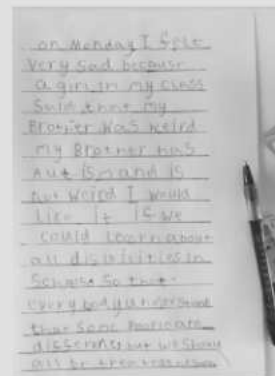
코프랜드가 팔에 감각을 잃은 것은 2004년 그가 18살 때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서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그는 팔 아래쪽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코프랜드는 칩 이식수술을 받은 지 한 달 후부터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팔 뿐만 아니라 손등과 손의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현재 코프랜드는 안정적으로 감각을 느끼고 있다”며 “감각을 증폭시키는 데는 수개월의 훈련과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 팔을 자신의 원래 팔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애는 다를 뿐, 이상하지 않다”

### 자폐증 오빠 둔 6세 소녀 편지 화제



자폐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6세 소녀의 편지. ©미국자폐증협회

자폐증을 가진 친오빠를 생각하며 쓴 6세 소녀의 편지가 화제가 되었다. 영국에 사는 렉스 카밀레리는 최근 학교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가 그녀에게 “네 오빠, 이상해”라고 말한 것이다.

렉스는 친구에게 “오빠는 이상하지 않으며 자폐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렉스의 친구는 자폐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렉스는 친구들에게 자폐증에 대해 알리는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렉스의 엄마

마 소피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난 친구가 우리 오빠가 이상하다고 말해 매우 슬펐다. 오빠는 자폐증이 있을 뿐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장애에 대해 배운다면 장애인을 이해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렉스의 엄마는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다운증후군 여성, 유치원 교사 꿈 이뤄 아르헨티나 최초로 정식 채용

아르헨티나에서 다운증후군 장애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지 못했던 여자아이가 커서 유치원 교사가 됐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 등은 다운증후군 장애로 인해 놀림을 받고 자랐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주는 유치원 교사가 된 노엘리아 가렐라(31)의 사연을 전했다.

가렐라는 9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최근 아르헨티나 중부도시 코르도바에 있는 ‘제르모니토 유치원’에 정식 채용됐다. 아르헨티나 최초의 다운증후군 교사가 된 것이다. 가렐라가 교사가 된 것까지는 주변의 우려와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노력 끝에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체, 지적 장애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다운증후군 장애



▲다운증후군 장애인인 가렐라가 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뤘다. ©THE INDEPENDENT

인이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도 채용된 것은 전 세계에서 드문 일이다.

가렐라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꼭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

유치원의 수사나 제르단 원장은 “가렐라가 유치원의 일원이 되고, 아이들이 그녀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줬다”고 밝혔다.

## 영국, ‘재생 렌즈’ 동물 실험 성공

### 시각장애 토끼, 3개월만에 시력 회복

3개월만 착용하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재생 렌즈’ 개발 소식이 전해져 저시력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영국 카디프대학과 일본 오사카대학 공동 연구팀은 시각장애토끼의 각막에 ‘재생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 수술은 개인의 즐거이 세포로 만든 재생 렌즈를 각막에 이식해 자연적으로 시력을 회복

시키는 것으로, 3개월이면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구팀은 재생 렌즈가 백내장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도 발견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 전국 편의센터

#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 호남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하반기 보수교육 출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이승협 대리



▲호남권역 임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 4개 권역 500명 보수교육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 이하 중앙센터)는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호남권역(제주 포함), 영남권역, 수도권(강원 포함), 충청권역의 4개 권역에서 임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편의센터가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준준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대행기관 임직원의

로서의 자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 및 사례해설이 주를 이뤘다.

### 공적 업무 책임감 강조

첫 번째 교육은 11월 17~18일 전남보성다비치콘도에서 호남권역(제주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먼저 중앙센터장을 대신해 주관센터인 전남센터 장재곤 센터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장재곤 센터장은 편의센터 임직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가 '청탁금지법'에 관해 강연했다. 홍 변호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3의 제3항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편의센터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으로 중앙센터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자등 윤리·행동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홍 국장은 편의센터 임직원들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장에게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나 선물 등을 거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새로이 시행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비교 설명하며 편의센터 업무 범위에 대해 전달했다.

이후 광주센터 유현섭 사무

처장(선임)의 특강이 이어졌다. 유 사무처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직원의 의무와 예절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서 전남센터 정경면 사무처장(선임)은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인식개선 사례를 이야기했다. 실제 업무에서 겪은 좋은 사례를 전달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한편 2회차 교육은 11월 22~23일 경북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에서 영남권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4~25일에는 강원 컨벤션실 악비치에서 수도권(강원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지막 4회차는 29~30일 충북 수안보한국콘도에서 충청권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중앙센터는 이번 권역별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편의센터 직원이 편의시설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고 편의센터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의센터는 앞으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우리 사회의 청렴한 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수교육으로 편의센터 임직원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 기회를 갖길 바란다.



▲전남센터 장재곤 센터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홍세욱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강연을 하고 있다.



▲전남센터 정경면 사무처장(선임)이 특강을 하고 있다.



2016 성남시장장애인취업박람회

# 장애인 800명 참가해 성황

## 현장채용 58명, 163명 2차 면접 기회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복)은 11월 9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16 성남시장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진로를 고민하는 특수학교 학생, 지역주민 등 약

8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성남 및 서울, 광주, 용인 지역의 롯데하이마트, 아프리카TV, KT IS, 분당제생병원 등 42개 사업체에서 생산, 사무,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했다. 구직자 중 58명이 현장에서 채용됐고, 163명이 2차 면접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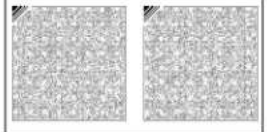
회를 얻었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 작성 지원,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병행했다. 또 취업과 관련한 보조공학기기 전시, 메이킹업 및 헤어스타일링, 시각장애인 안마시연, 응급처치 CPR교육 등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성남장복 정의철 관장은 박람회를 열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인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좋은 회사로 취업해 모두 만족하는 취업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구직자 김모 씨는 "이번 박람회에 다양한 업종에서 맞춤형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체가 많이 참가해 폭넓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남장복은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업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 부스를 더욱 보완해 2017년에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성남장복이 성남시청에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 퀴즈

1. 지장협은 11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인권 유공자 6명에게 이 상을 시상했다.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헌신한 지장협 회장 지장협 조대회회장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이 상의 이름은?
2.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창립기념일은 언제인가?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 독자의견

'1인 미디어 속 장애인 비하' 관련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절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김성자

국정감사 기사를 통해 국회에 오르내리는 장애인 관련 논의들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조준호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news@kappd.or.kr〉

※ 주소와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11월 11일  
대구협회

### 당첨자

서울 은평구 김성자  
강원 춘천시 조준호  
부산 연제구 송재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작업장  
가브리엘 작업장

한국장애인고용진흥원  
공동주최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밀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거장은 장애인성상을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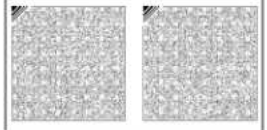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7종세트)

♡문의♡

Tel. 02-951-9707 Fax. 02-951-9708  
서울시 노원구 한남비치로 24라길 04-13  
http://www.gabrielcenter.or.kr





## 상황별 복지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발간한 『장애등급별 장애인 복지혜택』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자세한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 1. 장애 복지용어 이해하기

- 장애 복지서비스 관련 용어

용어	개념 설명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총 15개) - 신체적 장애(12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 정신적 장애(3개): 지적, 자폐, 정신장애
장애등급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장애의 경중에 따라 1~6급으로 구분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 3급 장애인 중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 (주장애 3급 + 다른 유형 장애 하나 이상)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장애인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결정·공표
복지급여	■ 법령에 의해 소득·재산 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수급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차상위계층	■ 소우주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
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보장단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위(개인 또는 가구)
보장기관	■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이용권	■ 영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특수교육 대상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총 11개 병주)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선정

-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용어

구분	시설종류	기능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소 또는 통합하여 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양가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양가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 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 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보호 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 근로사업장,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장애인근로 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입원, 통원을 통해 장애인 대상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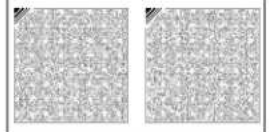
### 2. 장애 관련 주요 기관

주요기관	주요 업무	연락처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사회복지, 장애인정책, 건강보험정책, 연금정책 등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 연금지급 및 관리, 장애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근로능력평가, 장애인 서비스 연계지원 등	콜센터1355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급여(장애인 보장구)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1577-1000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등	1350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복지증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	1588-0075
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 일자리 및 훈련 지원	1588-1519
고용복지센터	■ 일자리 지원 포털 사이트 <a href="http://www.workplus.go.kr">http://www.workplus.go.kr</a>	
교통안전공단	■ 교통복지 서비스	1577-0990
장애인 거주시설	■ 주거관련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양가,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각 시군구청
영구임대주택	■ LH공사 ■ SH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114 1600-3456 031)738-7114
장애인재활 치료시설 등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관련	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	■ 질병예방, 장기이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등	043)719-7700
복지로	■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a href="http://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a>	
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회·보육 서비스 사업의 통합관리	1566-0133 등

### 3.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연락처

구분	지역	전화번호	구분	지역	전화번호
광역시	서울	1588-4388	충청북도	청주	1588-8488
	부산	051-466-2280		충주	043-877-6161
	인천	1577-0320		괴산군	043-832-7775
	대구	1577-6776		제천시	043-642-0151
	광주	062-600-8900		보은군	043-544-1211
	울산	292-8253		영동군	043-744-2220
	대전	1588-1668		옥천군	(043) 733-7589 / 5546
	제주도	1899-6884		음성군	043-873-7744
	강원도	통합운영 1577-2014		영동군	043-883-2908
				영동군	043-872-6800
경기도	고양시	1577-5909	충청남도	충청남도	043-836-4627
	과천시	02-502-9418		진천군	043-533-8758
	광명시	02-2688-2582		계룡시	042-841-9990
	광주시	1666-6636		공주시	041-852-5858
	구리시	031-551-0020		논산시	041-733-0337
	군포시	1899-4428		당진시	041-358-9787
	김포시	1899-2008		보령시	041-933-3517
	남양주시	1666-5525		서산시	041-665-1111
	동두천시	031-862-1091		세종시	044-866-2220
	부천시	1588-3815		아산시	041-546-1503
경기도	성남시	1577-1158		천안시	041-552-0078
	수원시	031-523-5525		부여군	041-836-2155
	시흥시	031-488-6822~4		서천군	041-951-0999
	안산시	1588-5410		예산군	041-335-3330
	안성시	031-674-8050		청양군	041-942-2111
	안양시	031-389-5200		태안군	041-672-1605
	양주시	031-862-9977		홍성군	041-634-0026
	여주시	031-882-0747		군산시	063-471-8187
	오산시	031-378-7816~7		김제시	063-544-8270
	용인시	1588-6585		남원시	063-626-1911
경기도	의왕시	031-462-8253		익산시	063-583-1334
	의정부시	1577-2515		전주시	063-271-2727
	이천시	1899-0017		정읍시	063-536-9870
	파주시	1899-6199		고창군	063-561-2338
	평택시	031-651-4700		무주군	063-322-9411
	포천시	031-536-2000		부안군	063-547-5858
	하남시	031-795-2701~3		완주군	063-261-7119
	화성시	1588-0677		임실군	063-644-4000
	가평군	031-581-2302		장수군	063-351-4967
	양평군	1899-8268		진안군	063-433-4223
경기도	연천군	031-835-1155		광양시	061-761-1245
				나주시	061-331-970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설지원부 황인옥

# 장애인가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 초고령화시대, 장애인노인 증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섰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며 따라오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30만명이 홀로 살아가며 경제적인 빈곤과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노인'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령층에 장애 발생률이 증가하며 장애인이 노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노인은 노인 문제와 장애 문제를 이중적으로 떠안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증가하는 장애인노인 복지와 노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대 변화에 맞는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 확충, 생계보장, 보건의료지원 등 포괄적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원예업에 종사하는 고령장애인. ©disability-smart.com

## 장애인노인 자립 열쇠 '고용정책'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 대상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노인 정책은 각각의 복지체계가 지닌 강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할 때 가장 간단하게 복지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혜자의 정책 의존이 높아져 고비용을 초래한다.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국가 및 경제주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복지, 생산

적 복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노인이 현재의 취업상태를 연장하거나 창업 지원, 고용증진 정책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장애인노인도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장애인고용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보다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자.

## 핀란드, 안정적 생활 제공

핀란드는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기준으로 60.8%에 달하며, 장애인 실업률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 차원에서 60개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위탁해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재활센터 고용률

은 70%에 육박한다. 프로그램에 수료한 장애인이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을 제공하고 취업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배려한다.

또 핀란드에서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아 직업능력이 높은 장애인들을 기업에서도 거리낌 없이 고용한다.

## 미국, 능력에 맞는 직업 교육

미국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능력 개발 등 직업개발 서비스 정책을 시행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자질을 높여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독일, 6% 장애인 할당고용제

독일에서는 장애인 할당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6% 이상을 의무로 고용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도 취업 기회가 열려 있다. 할당고용제는 16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게 되어있지만 탄력적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독일은 장애인 직업사관학교라 불리는 '까리파스' 같은 장애인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직업장을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비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 일본, 할당고용과 납부금제

일본에서는 할당고용제와 납부금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할당고용제는 기관마다 고용해야 할 비중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고용할 때마다 납부금제를 통해 기업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 입장에서도 일정 비율의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

## 장애인 고령화 대비해야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경우 더 체계적인 직업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및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가까운 미래의 '장애인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80호 2016년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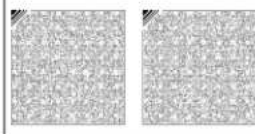
회장·발행인/김경환 편집장/염민호 기자/오정세, 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특별상 수기

## 오름같이 등직한 내 남편

— 김춘란 · 김한준 부부



### 성실하고 속 깊은 남편

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지도 27년이 되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나 서로 잘 모르는 채 결혼을 했다. 첫 만남, 지적장애인이 남편을 만났을 때 내 눈에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였다. 우리 아버지도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에 내게는 특별하지 않아 보였다.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엔지니어로 일하는 남편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목발을 짚고 버스에 오르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쓸 수 없어 비를 다 맞고 다녔다. 사는 곳도 외곽이라 버스 시간도 제때 못 맞출 때가 많았다. 옆에서 바라보며 가슴만 아파할 뿐, 신랑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에 울컥할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 친구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남편은 서울 강서면허시험장에서 면허취득 가능성을 타진한 후 서울로 향했다. 그이는 서울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고 면허를 취득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내려와서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길을 다녀 보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이 다니지 못한 한을 풀려는 듯했다. 남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은 가슴 아픈 시련도 많았다. 시련을 극복하며 점점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웠고, 두 딸을 낳으면서 행복한 날들이 많아졌다. 남편은 딸들과 드라이브 하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책장에 앨범이 꽂힐 정도로 딸들 사진을 많이 찍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느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모두 인정받는 남편을 보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가끔 나쁜 손님들에게 무시받은 날에도 힘든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웃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가족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늘 웃었다. 난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신랑의 직장애 주주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뜰게도 내가 찾아가는 날, 손님이 남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퍼붓는 것을 보았다. 남편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계속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했다. 나는 속상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더 걱정하며 괜찮다고 다독여주었다.

### 도전하고 성취하는 멋진 사람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아빠의 모습을 창피해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잘 자랐다. 아빠가 만든 앨범과 많은 대화를 통해 아빠가 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충분히 느낀 것 같다. 지금은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딸들을 보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아이들 만큼이나 나도 남편을 존경한다. 그이의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남편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가전제품 수리를 담당했다. 1998년 6월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의 추천으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전자기기 부문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제1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소에도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다. 그이는 국가대표로 체코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도 출전했다. 2000년 8월 8일 선수단 결단식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간다며 좋아했는데 그 대회에서 값진 은메달까지 거머쥐었다. 그 후 철따산업협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다녀왔다. 그 훈장은 우리집 거실에 당당히 걸여놓았다.

또 취미로 사진을 찍던 남편은 점점 열정을 더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었다. 일주일에 6일은 회사에 출근해 피곤할 텐데도 일요일마다 이곳저곳 사진 찍으러 돌아다녔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부터 남편은 매일 운동을 시작했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서라도 밖으로 나갔다. 목발이 미끄러울 텐데도 굴하지 않았다. 열심히 사는 남편을 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다.

### 다음 생에도 당신과 만나길

새삼 시간이 많이 흘렀다. 긴 결혼생활 동안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아빠와 공감할 줄도 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장성해 결혼도 하고 각자의 삶에 충실해질 때쯤 우리는 서로에게만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 때도 등직한 남편에게 기대며 부부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남편이 정년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질 걸 생각하니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지금껏 자기 시간 없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남편은 충분히 쓸 자격이 있다.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희생하며 남편을 든든히 지킬 것이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남편은 벌써 노후 준비를 한다. 퇴직 후에도 할 일을 정하고 나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남편은 스스로 장애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고 싶은 일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해보라고 말하는 당시, 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하고 싶은 것을 접은 적이 많은데, 항상 도전하는 남편을 보면서 배운다. 남편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 딸들은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디 가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멋진 남편을 만난 나는 행복한 여자다. 그이를 정말 사랑한다.

장애라는 말은 단지 단어일 뿐이다. 오름같이 등직한, 항상 도전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내가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생에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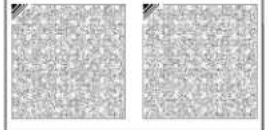
“여보 나랑 결혼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 장애계인사이드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정효선 관장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삶의 미학



나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왔으며, 거기에 더해 장애인으로 왔다.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고 "필연"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선 자신이 의도하고 선택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욱 결정적인 것 같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

어도 멈춰야 하는 자리가 있고, 다가가기 싫더라도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야 하는 시점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단편집에는 재미있는 우화가 나온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려 했다. 하지만 몸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바람에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지면 매서운 추위에 견딜 수 없어 다시 모여든다. 또다시 가시가 서로를 찌러 다시 흩어졌다. 모이면 흩어져야 하고, 흩어지면 다시 모여야 하고, 고슴도치들은 이럴 수도 저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를 피할 수 있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있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예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슴도치 딜레마(Hedgehog dilemma)의 유래이기도 하다.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가 가져오는 이러한 딜레마는 친밀함에 대한 연구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故 장기철 회장님께서 예전에 "장애인은 본인의 노력 99%와 1%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에서 뼈를 깎는 인고(忍苦)의 세월을 뜻하심이 아닐까 생각했다. 힘들고 절박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커다란 위안이 되어 힘을

을 얻곤 하였다.

인간을 오직 물질적 존재자로서만 이해한다면, '장애인 복지' 같은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저 약육강식(弱肉強食) '동물의 왕국' 처럼, 장애가 있거나 혹은 약하고 병들고 늙으면 먹이사슬이 되거나 자연도태 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그때 '장애'는 곧 '열등'이며 열등은 곧 죽음이다.

영혼이 결여된 물질과 야생은 모두에게 비참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비단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타 비장애인들의 인간적 삶의 본질적 이해와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세계와 인간을 더 높은 단계에서 바라봐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우

리는 '장애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쯤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온 나의 삶을 객관적 의미에서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가꾸어 왔는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끝없는 회한이 밀려온다.

도대체 '장애인'의 의미는 무엇이며, 장애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이것보다 더 보편적이고 의미심장한 물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의 현실이 절망이고 끝이라면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희망이다."

서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O 비전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당당하게! 함께하는!

더해봄은  
지하철택배 및 카페테리아 사업(1,2호점)을 통해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택배



카페



더해봄  
Deohaebom



카페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매일 직접 로스팅합니다.  
구입 문의 주세요!! (200g, 500g, 1kg)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14, 4층  
TEL. 02-742-0660 FAX. 02-742-7321  
SITE. <http://jnappd.or.kr>



##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발전의 큰 획을 그으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협회를 창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까지 초창기에 활동했던 분들의 노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장애를 극복해가며 기초를 닦고 기틀을 다져 온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기초단위의 지회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이렇다 할 빛도 없이 희생하신 지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노고

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3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건과 함께 크고 작은 주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협회는 모든 회원이 하나 되어 기꺼이 투쟁하고 목표를 쟁취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이 사회에 내뉘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그것이 장애인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향상되었고,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관점을 바꾼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신체장애의 몸으로 살아갈지라도 위대한 생

각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펼치고자 노력할 때 모두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최종 원고를 받아 들였을 때 안도감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가슴에 품고 앞서서 험난한 길을 걸어간 선구자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되새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 30년을 또 써내려가기 위한 기점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 기록물이 유실되거나 찾을 수 없어 책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미완의 삶을 살며 아쉬워하는 것처럼 역사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은 미흡하나마 역사기록물 한권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협회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기를 기대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길을 외롭게 걸어 온 역사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진취적인 목표와 방향을 정립한다면 우리 협회가 추구해온 이 땅의 선진 복지 국가의 꿈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책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새로운 완결판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전범(典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미래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변혁하고 복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뒤로 밀려납니다. 모든 것이 완성이 아닌 역사의 과정임을 자각한다면 개혁과 변화의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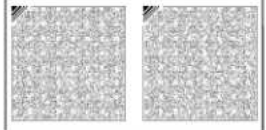
이제 우리 협회는 생활의 질 향상을 넘어 인간 본연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 복지 국가의 길로 들어서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장협 30년사 발간에 애쓰신 각 시·도 협회 장님들과 복지관 관장님들, 그리고 지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찾고 취합하여 원고 작성과 편집·교정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 선진 복지국가의 꿈을 현실로!

- 지장협 30년사 발간에 부쳐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리더스토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나 역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연일 고통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며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 힘들었지만 세상에 나와 노력한 끝에 기업인으로 자리 잡아 회사를 경영했다. 우연한 기회에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인연을 맺었고, 나와 같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하기로 다짐했다.

나는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리 높여 외쳤고 세상에 나오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래야 더 큰 목소리가 되어 세상에 들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독려하며 결집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국내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성장했다. 또 지장협은 장애인복지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장애인들 동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 존재로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 10월 7일, 대구에서 '2016년 전국지체장애단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으로 함께한 대구지역 회원들과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협회 1만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30년간의 열정과 감동을 재현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스포츠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교류하는 지장협 동지들의 모습이 감격을 넘어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올라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 장애인들은 많은 이동의 제한이 있었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폐쇄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스포츠는 비장애인의 전유물이었으며 장애인에게는 사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같은 뜻을 가진 한 사람 한 사

람이 모여 지장협을 이뤘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장애인복지를 외치며 투쟁한 결과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눈덩이효과(snowball effect)'와 같다. 작은 입자가 산 정상에서 굴러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커다란 눈덩이가 되듯 우리 지장협도 강한 응집력으로 빠르게 국내 최대의 장애인 단체로 성장했다. 또 단순히 뭉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국조직화'를 실현했다. 개인의 능력을 모아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헌신했다. 그리하여 많은 장애인복지의 실현과제를 해결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의 도전이 결실을 맺은 원동력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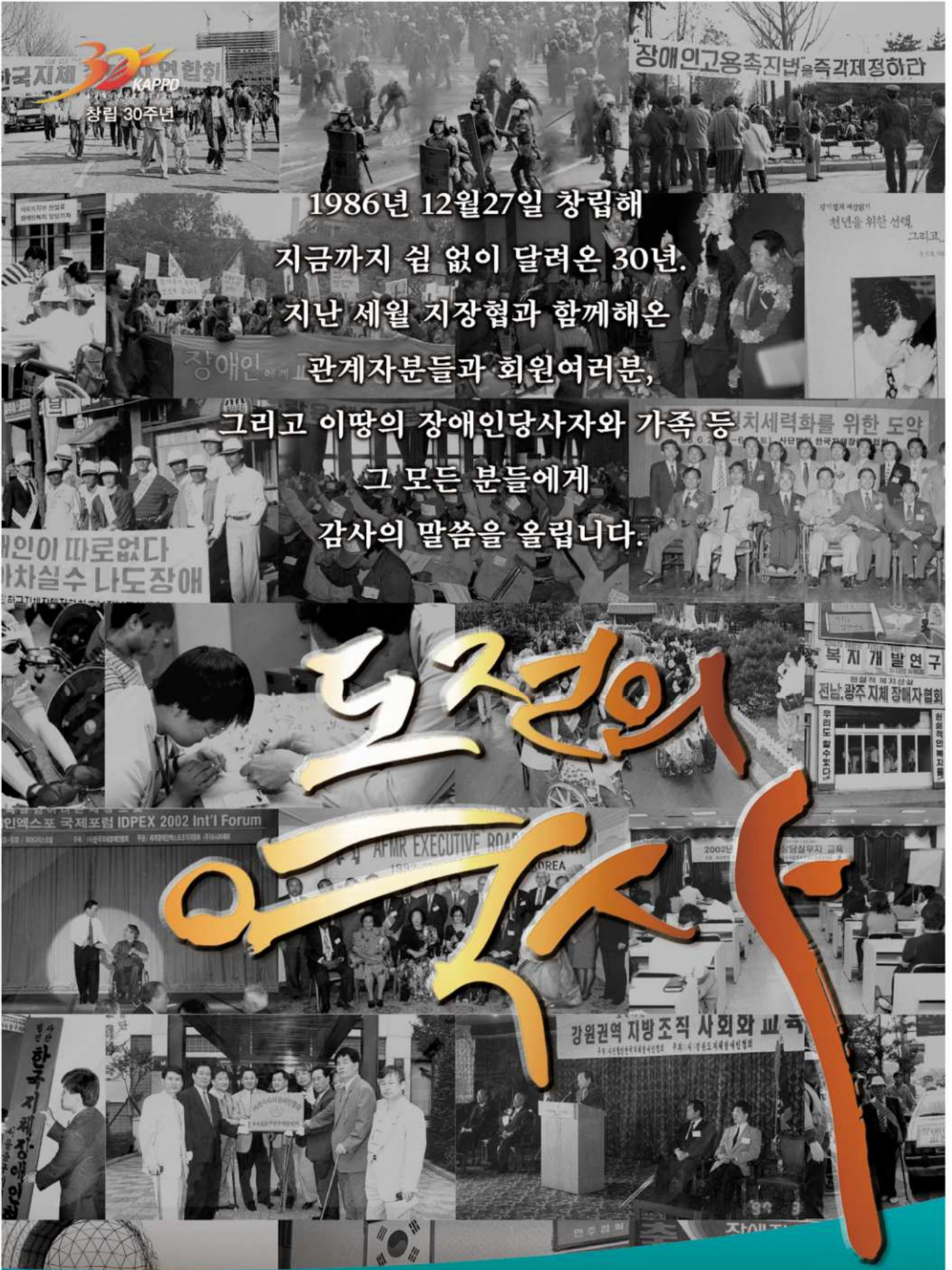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목소리를 낸 데 있다. 그러나 요즘 복지예산에 편승하여 간판만 내건 자격 미달 단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쏟아지며 우리 지장협의 결속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3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처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고취해 견고한 '눈덩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30년 업적을 새겨며 장애인복지의 선두에서 서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장애인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지장협이 30주년을 맞이한 2016년, 나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협회가 나아가야 할 미션과 비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심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 한마음, 한뜻으로





1986년 12월27일 창립해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온 30년.  
 지난 세월 지장협과 함께해온  
 관계자분들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이땅의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등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도전 이제